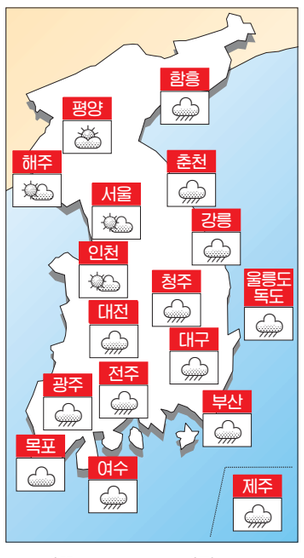
나들이 강풍 주의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8월 19일 (음 7월 26일) 날씨

광 주	23~30℃
목 포	24~30℃
여 수	25~29℃
완 도	23~30℃
구 례	23~31℃
해 남	23~30℃
장 흥	23~30℃
고 흥	24~30℃
순 천	22~30℃
영 광	23~30℃
진 도	24~30℃
전 주	24~30℃
남 원	21~29℃
정 읍	22~29℃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5~3.0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5.0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5.0m

▲해뜸 05:55 ▲해짐 19:17
▲달뜸 01:03 ▲달짐 16:37

목포 밀물 10:24 23:51 썰물 04:38 16:13 여수 밀물 06:09 19:05 썰물 00:44 12: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날 씨						
최저/최고	23/31	24/32	23/32	23/32	23/32	23/31

주말 최고 20㎜ 비

태풍 '우쿵' 21일 빠져나갈 듯

북상(北上)중인 제10호 태풍 '우쿵'(WUKONG·중국말로 원숭이의 왕)의 영향으로 주말인 19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한 두 차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9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5~20㎜의 비가 내린다"고 18일 예보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에는 2~5m 높이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19일 새벽 남해서부 모든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휴일인 20일에는 태풍 '우쿵'이 속초 북서쪽 약 50㎞ 부근 육상까지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비는 내리지 않고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우쿵'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21일부터는 광주와 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등 한 차례 찜통 더위가 더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10호 태풍 '우쿵'의 경로가 애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19일 오후 3시께 부산 북북동쪽 70㎞ 부근에 상륙한 뒤 동해안을 끼고 북상, 21일 오후 3시께 원산 방향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법무부 간부가 브로커 짓

사건 청탁 등 명목 수천만원 챙겨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각종 비리방지 대책을 밝힌 가운데 이번엔 법무부 간부가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법무부 일반직 4급 공무원 우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2~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여)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법원 공무원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또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2003년 7월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를 받다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D씨에게 세관 직원에게 얘기해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하고, 가스충전 사업 인허가 편의를 위해 타부처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권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우씨는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인 구치소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는 법무부 직원들의 비위를 내사하는 '감사 담당 서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가 이런 식으로 2003년~2005년 의뢰인들에게 챙긴 돈은 모두 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성장클리닉 열풍 안심할 수 있나

억지 '키 키우기'…효능은 '글쎄'

여름방학을 맞아 병원과 한의원의 성장클리닉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학부모들은 '용하다(?)'는 병원 및 한의원을 찾아 서울·대전 등 전국 각지로 원정을 떠나고, 수 백만원을 호가하는 비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열풍 속에 일부 병원·한의원들은 성장 테스트를 빌미로 돈벌이에 급급하고, 최근에는 여자 어린이의 초경을 늦춰 성장판 폐쇄를 막는 주사요법까지 등장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여름방학 병·한의원 문전성시

◇'롱다리' 열풍=광주의 K한의원의 성장클리닉에는 최근 방학을 맞아 하루 평균 20여 명의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고 있다. 이 한의원 성장클리닉을 찾은 환자 수는 지난 2004년 630명에서 지난해 806명으로 28% 가량 늘었고,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6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전남대병원 성장클리닉의 경우 2001년 120명 수준이었던 환자 수가 2005년에는 590명으로 5년새 5배 정도 급증했고, 올해도 350명이 다녀갔다.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2001년 200명에서 최근 2~3년 사이 연 50명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300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에서 성장클리닉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 나서는 '원정파'들도 있다.

비용 수백만원 원정 진료도

주부 이모(43·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최근 대전 H한의원에 딸을 데려갔다. 키를 잘 크게 해준다는 입소문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학부모와 자녀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한다. 한 달에 40~50만이 들지만, 이 병원은 그래도 싼 편이다.

성장 클리닉의 초진 비용은 일반 병원·한의원의 경우 4~5만원이며, 대학병원은 30만~40만원 대다.

하지만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는 등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가면 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보통 30㎏대 어린이의 경우 한 달 비용이 100만원을 넘게 된다.

◇부작용 우려=주부 장모(43·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최근 광주 모 한의원에서 "공짜로 성장 테스트를 해주겠다"는 말에 딸(12)을 데리고 갔다. 하지만 의료보험 고지서에는 6천900원이 검사비 명목으로 부과돼 있었다.

성장판 폐쇄 막는 주사 부작용

장씨는 "지난 4월에도 모 한의원에서 '키 크는데 좋다'고 권유해 30만원짜리 녹용을 먹이기도 했다"며 "검증되지도 않는 처방을 내리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자 아이들의 초경을 늦춰 성장판(成長板) 폐쇄를 막는 주사(일명 루프린 주사제)도 학부모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여자 아이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도 각종 성장 촉진제를 시중에 내놓고 있지만 약효에 대한 검증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성장 촉진제는 K제약의 'K' 등 모두 20여 종에 이르고 있다.

"시판 성장 촉진제는 단순 영양제"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키를 키운다고 입증된 성분은 하나도 없다"며 "이들 제품은 단순 영양제일 뿐 키 크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성장판(成長板)=뼈가 자라는 장소를 말한다. 신체 뼈 중 관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긴 뼈의 끝부분에 있으며, 이 부분이 성장하면서 키가 자라게 된다.

최근 성장클리닉을 찾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우참 〈6911〉 김종두

전형준 화순군수 기소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18일 전형준(50) 화순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등)로 구속 기소했다.

5·31 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이 기소되기는 1심 계류중인 오현섭 여수시장(56·유사기관 설치·이용 혐의)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지만, 구속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당시 드러난 것 이외에 추가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선거 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10억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질 확산속 화순서 100명 집단설사

2명 이질균 감염 확인…정밀 역학조사

종교단체 수련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세균성 이질, 설사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환자들을 병원에 격리조치하고 환자 가족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8일 화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8월 2일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미스바'연수원에서 열린 모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전남·북 교인 600여 명 중 100여 명이 귀가 후 설사 증세를 보였다.

특히 전북 김제시에서 온 교인 2명은 이질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수련원에서 채취한 가검물을 역학조사 한 결과 연수원 식당의 물에서 대장균군인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질균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4박5일간 경남 산청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교단체 수련회에 다녀온 뒤 설사 증상을 보여왔던 전북도민 31명 가운데 3명이 세균성 이질환자로 판명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보건당국도 산청 수련회에 참가한 지역민들에 대한 가검물 검사를 벌여 각각 5명, 1명의 세균성 이질 양성 반응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대전 출신 수련회 참가자 2명이 추가로 설사증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을 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가족 등 4명에 대해서도 가검물 검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 참가자 106명 가운데 3명이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

과수원 농약방제 60대 살포기에 깔려 숨져

18일 오전 08시 20분께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유정마을 임모(63)씨가 자신의 감나무 과수원에서 방제작업을 하다 농약살포기(아세아다목적 SS기계)가 뒤집히면서 그 아래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과수원 길이 다소 경사가 있어 농약살포기가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사과 편지와 함께 되돌아온 담요 한장

대한항공 승객 소포 반납
작년에만 30만장 사라져

지난 10일 대한항공 인천공항지점으로 분홍색 서류봉투에 약간 두툼하고 푹신한 내용물이 들어 있는 한통의 소포가 배달됐다.

이 봉투에는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제공되는 갈색 바탕에 체크무늬가 새겨진 담요 한장과 A4 인쇄용지 절반 분량의 편지 한통이 들어 있었다.

소포를 보낸 주인공은 청주에 사는 민모씨로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필리핀을 다녀온 승객이었다.

민씨는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승객들이 담요를 들고 나가거나 가방에 넣어가는 것을 보고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담요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러나 집에 와서 담요를 펼쳐보니 담요가 대한항공의 자산이라는 내용의 글귀를 보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결국 사과 편지와 함께 담요를 되돌려 주게 된 것이다.

민씨는 편지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의 말로는 비행기 이용요금에 다 포함된 거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죄송하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대한항공을 이용하겠다. 안전운항 하십시오"란 말로 사과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2001년 17만6천장, 2002년 21만3천장, 2003년 25만3천, 2004년 29만8천의 담요가 사라졌고 2005년에도 30만 정도의 담요가 사라져 매년 수억원의 손실이 있다. /연합뉴스

"적조때 양식어류 방류 보상 추진"

김성진 해양장관 여수 방문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 어류 사전 방류 등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면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적조현장 시찰차 이날 여수시 남면 화태도 가막만 해역을 찾은 김 장관은 "정부에서는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로 인해 어류들이 폐사하기 전에 양식어류를 방류한 뒤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안을 올해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경남에 5개, 전남에 1개 등 6개의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도록 했고 적조를 피해 가두리 1곳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적조는 있어도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하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와 관련, "정부에서 다양한 방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황토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황토를 쓰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수시의 적조 연구센터 설립 건의에 대해 "기존 조직을 보강할지 아니면 대학 내에 센터를 설치할지는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여수시 남면 화태리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적조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성추행 물의 MBC 기자 사직서 제출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MBC 보도국 이 모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MBC 관계자는 18일 "이 모 기자가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아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모 기자는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해고 처분을 받았으나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다. 징계 당사자의 재심 요청으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유지됐으나 최 사장이 또다시 재심을 요청해 징계가 완화된 것.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모 기자의 아버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노사모 상임고문을 지낸 이기명 씨"라면서 "MBC가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싸기를 했을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냉방, 대형마트-금융기관-관공서 順

쌍나팔

○…대형 마트와 패스트푸드점이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고, 관공서는 냉방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정철웅 등 3인)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오후 3시 광주시내 공공기관 및 백화점 등 149곳의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대형 마트(패스트푸드점 포함)의 평균 온도가 24도로 가장 낮았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평균 25.6도, 백화점과 관공서는 각각 26도와 27도를 기록.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여름철 실내온도를 평균 1도 낮추면 2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형 마트와 금융기관이 좀더 에너지 절약에 신경쓸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